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경험과 남한사회 적응

2016년 0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대응

#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경험과 남한사회 적응

지도교수 이 순 형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0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대 응

김대응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0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은 상실 경험이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재북 및 남한입국 과정에서의 부모 상실 경험과 생태학적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고,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상실 및 생태학적 전환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이 경험한 상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셋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남한에 거주한지 1년이 넘는 16-21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10명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하고, 코드를 부여했으며, 범주화 과정을 거친 뒤, 범주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익숙하던 가치관과 문화, 친밀감을 느끼던 친구, 부모 및 형제 자매 등 익숙한 환경 상실을 경험한다. 특히 어머니 상실은 명확한 상실, 모호한 상실, 비 상실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학교적응, 사회적 관계 형성, 타인에 대한 불신감, 가족 부양 부담감, 정체성 혼란으로 인

해 어려움을 겪었다. 익숙한 환경 상실 경험 차이와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이 상이하였다.

셋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족을 재구성하고, 인적·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극복과정은 자신이 겪은 상실과 어려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분리된 이유에 따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익숙한 환경상실의 양상이 상이하며,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과정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부모 분리를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가치관, 문화, 또래 상실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지만,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다. 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입양, 종교 등 적극적 대처를 통해 어머니 상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인적·제도적 지원을 활용한다.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또래 관계형성의 어려움 및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어머니의 부재를 일시적 분리로 바라보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어머니와 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유사하게 학교 적응, 사회적 관계, 심리적 외상을 겪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극복과정의 양상은 차이가 있다. 또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생태학적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 상실을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상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의 다양한 유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머니 상실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과정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

주요어 : 북한이탈청소년, 무연고 청소년, 모호한 상실,  
생태학적 전환, 적응

학 번 : 2014-22902

# 목 차

## 국문초록

|                                   |    |
|-----------------------------------|----|
| I. 서론 .....                       | 1  |
| 1. 문제제기 .....                     | 1  |
|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             | 4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 6  |
| 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          | 6  |
| 1) 가족의 해체 경험 .....                | 6  |
| 2) 부모 분리와 심리적 외상 .....            | 7  |
| 3) 학교교육의 부재 .....                 | 8  |
| 4) 정치·경제체제의 변화 경험 .....           | 9  |
| 2.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          | 10 |
| 1) 모호한 상실 .....                   | 11 |
| 2) 생태학적 전환과 익숙한 환경 상실 .....       | 12 |
| 3.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적응 관련 요인 ..... | 13 |
| 1) 가족 .....                       | 13 |
| 2) 학교 .....                       | 14 |
| 3) 또래 .....                       | 15 |
| 4) 지역사회 .....                     | 17 |
| III. 연구 방법 .....                  | 19 |
| 1. 연구 참여자 .....                   | 19 |
| 2. 자료 수집 .....                    | 23 |
| 3. 자료 분석 .....                    | 23 |

|                                 |    |
|---------------------------------|----|
| IV. 연구 결과 .....                 | 25 |
| 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상실 .....    | 25 |
| 1) 부모 상실 .....                  | 25 |
| (1) 명확한 아버지 상실 .....            | 25 |
| (2) 어머니 상실의 다양한 유형 .....        | 26 |
| 2) 생태학적 전환으로 인한 익숙한 환경 상실 ..... | 29 |
| (1) 형제자매 상실 .....               | 29 |
| (2) 친밀감을 느낀 친구 상실 .....         | 31 |
| (3) 익숙한 가치관과 문화 상실 .....        | 33 |
| (4)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상실 ..... | 35 |
| 2.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 .....           | 37 |
| 1) 학교 적응의 어려움 .....             | 37 |
| (1) 지나친 관심에 대한 거부감 .....        | 38 |
| (2) 벗어나고 싶은 보호의 틀 .....         | 39 |
| (3)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진로의 부담 .....    | 41 |
| 2) 또래 관계형성의 어려움 .....           | 43 |
| (1) 만나기도, 사귀기도 어려운 남한친구 .....   | 43 |
| (2) 같이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고향친구 .....   | 45 |
| 3) 타인에 대한 불신감 .....             | 46 |
| 4)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 .....        | 48 |
| 5) 정체성 혼란 .....                 | 50 |
| (1)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        | 50 |
| (2) 잘하는 게 없는 나 .....            | 50 |
| 3. 어려움 극복과정 .....               | 51 |
| 1) 가족의 재구성 .....                | 51 |
| (1) 가족주의 가치관 .....              | 51 |
| (2) 새로운 부모가 생긴 기쁨 .....         | 53 |



|                                 |    |
|---------------------------------|----|
| (3) 남한에서 가족과의 재회를 소망 .....      | 54 |
| 2) 인적 지원 .....                  | 57 |
| (1) 함께 남한에 온 가족 구성원 .....       | 57 |
| (2) 엄마 같은 학교 선생님 .....          | 58 |
| (3)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교회사람 .....    | 59 |
| (4) 고마운 형사님과 정착도우미 .....        | 60 |
| 3) 제도적 지원 .....                 | 61 |
| (1) 부족하지 않은 경제적 지원 .....        | 61 |
| (2)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 .....          | 62 |
| (3) 제도적 지원으로 인한 가치관 변화 .....    | 63 |
| 4) 정체성의 형성 .....                | 64 |
| (1) 잘할 수 있는 중국어 .....           | 64 |
| (2) 북한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 | 65 |
| <br>                            |    |
| <b>V. 결론 및 논의</b> .....         | 67 |
| 1. 결론 .....                     | 67 |
| 2. 의의와 한계 .....                 | 70 |
| <br>                            |    |
| <b>참고문헌</b> .....               | 73 |
| <b>부록</b> .....                 | 80 |
| <b>Abstract</b> .....           | 83 |

# 표 목 차

|                        |    |
|------------------------|----|
|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 21 |
|------------------------|----|

# I. 서론

## 1. 문제제기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 가며 발달한다(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은 자기 스스로와 환경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Sandstorm, Martin, & Fine, 2006). 환경의 변화는 청소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변화시키며,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적응과정에서 청소년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문화적 발달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는 과정일 것이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통일부에 등록되어있는 8세 이상 18세 이하 북한 이탈청소년 전체 인구는 1,111명이다(남북하나재단, 2015). 이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적응 과정을 겪게 된다. 가깝게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 집, 또래들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문화, 가치가 변화한다. 이 변화 과정 중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인적 자원은 부모이다. 청소년과 부모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청소년과 다른 환경요소 간 관계가 변화한다(Allen, Moore, Kuperminc, & Bell, 1998).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이순형, 진미정, 2006).

일부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남한에 입국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은 부모의 부재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간다. 이들은 다른 환경요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 상실로 인한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1999년 5명에 불과하였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2000년 이후 증가하여, 2009년 남한에 입국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60명을 넘어섰다(김현경, 2013). 2014년 북

한이탈청소년 중에서 2.96%는 직계존속과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14).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지긴 하였으나(김현경, 2013; 김현아, 방기연, 2012; 노윤미, 이주용, 2011; 신현옥, 김도혜, 윤상석, 허수경, 강희석, 이소라, 주한나, 2011;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아직도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겪는 환경 변화와 상이한 변화를 경험한다. 자신이 직접 상호작용하던 환경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둘러싸고 있던 더 큰 환경까지 상실하기 때문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했던 친구, 학교 상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의식, 문화, 가치 등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가족과 또래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 생태학적 전환 과정에서 겪는 익숙한 환경 상실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구성해나갔던 의미들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환경에 놓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이 구성했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개인 간 상호작용을 조절해야 하며(Stryker, 2007), 조절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더 나아가 부적응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한 입국 전에 이들이 경험한 생태학적 전환 및 익숙한 환경 상실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징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청소년과 달리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한다는 것이다.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한 이들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구분되는 심리적 상태를 보인다(노윤미, 이주용, 2011; Heinzer, 1995). 부모에 대한 상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 공간에 대한 상실이다(Herman, 1997).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직계존속을 동반한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겪거나, 더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이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있다(이현심, 박주현, 최덕경, 2011). 이러한 이유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중첩된 어려움’을 겪는 지원의 대상으로 생각되었다(신현옥 외, 201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부 청소년은 재북시 부모의 죽음으로 부모와 분리되고, 남한에 홀로 입국하지만, 다른 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되고 현재 북한 혹은 중국에 부모가 생존해 있기도 하다. 분리된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무연고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 상실의 양상은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상실 경험의 차이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았다. 상실 경험이 상이하다면, 이로 인한 남한사회 적응과정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은 부모와의 분리경험 및 탈북과정 경험을 살펴보고,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부모 분리 및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학교 적응, 학업 성취, 사회적 관계망형성, 심리적 부적응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6; 이기영, 2002; 이현심 외, 2011; 장창호, 200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다른 환경요소 간 상호작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Berger & Luckmann, 1966).

기존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주유형, 학교적응, 삶의 경험 측면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살펴보았다(김현경, 2013; 김현아, 방기연, 2012; 신현옥 외, 2011; 최경자 외, 2011). 이러한 연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부재

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및 극복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한다면 부모와 함께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다른 적응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 경험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남한에서의 어려움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부모 상실 유형에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입양, 대체가족의 형성, 자립을 위한 노력, 신앙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김현경, 2013; 신현옥 외, 2011). 이러한 적응 방식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어려움을 겪는 상황, 이들이 속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Ebata, & Moos, 1994; Patterson & McCubbin, 1987).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변화하는 모습은 달라진다. 심리적 외상을 겪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Folkman & Lazarus, 1985; Tedeschi & Calhoun, 1996).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한 상실,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 어려움 극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은 상실 경험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응을 개인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Stryker, 2007; Watt, 2001). 그리고 이 과정은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것과 현재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순환 고리(feedback loop)로 바라보았다(Goffman, 1959).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경험과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상실이 어떠한지, 남한에서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상실과 상호작용 간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상실 및 생태학적 전환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이 경험한 상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연구문제 3]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상실의 유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이에 따라 이들이 경험한 생태학적 전환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부모와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재북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익숙한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러한 어려움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떻게 다른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은 상실과 어려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 1) 가족의 해체 경험

식량위기 이후 북한의 가족 해체가 증가되어, 전통적인 가족체계나 가족기능이 유지되지 못하였다(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9). 이 때문에 북한 가족이 분리되고, 북한이탈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면서 가족 간 소통 단절과 심리적 고립감이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집단주의와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사회이다. 가족주의는 부계 가부장제도의 이념으로서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관점이다(옥선화, 1989;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가족주의는 자녀중심성, 결혼관, 성역할태도, 부계 중심성, 부양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이순미, 2014). 북한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근래에 부각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실패를 가족을 통해 극복하려는 재가족화 전략이 당에 의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경희, 강은애, 손명아, 2016).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남한 입국 이후에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순형과 진미정(2006)은 북한에 비해 남한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된 것으로 보았으며, 제3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많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남한에 거주한다. 이들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인연을 찾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고, 대체가족을 형성하는 등 가족의 재구성을 통해 남한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었다(김현경, 2013). 또한 일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의 부재 속에서 제3국에 거주해야 한다. 제3국에서의 경험이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과 다르기 때문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와 함께 탈북과정을 겪은 북한이탈청소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시기와 가족 해체로 인하여 변화한 삶의 모습에 따라 가족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2) 부모 분리와 심리적 외상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새로운 환경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더 겪었으며, 이로 인해 남한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경, 김희진, 2014).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 중 하나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부모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다. 부모 분리를 경험한 청소년은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더 취약할 수 있다. 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슬픔을 안겨주며, 심리적 외상(trauma)이 되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Lustig, Kia-Keating, Knight, Geltman, Ellis, Kinzie, Keane, & Saxe, 2004).

18세 이전에 부모와 분리된 네덜란드의 이민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더 나타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삶의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a, Derluyn, Eurelings-Bontekoe, Broekaert, & Spinhoven, 2007). 벨기에에 거주하는 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 동반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와 분리된 청소년은 부모를 동반한 청소년에 비하여 더 높은 우울, 더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Derluyn, Mels, & Broekaert, 2009).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 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족동반 청소년에 비해서 내재화 문제를 더 겪고 있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아 외, 201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분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적 변화는 이들이 경험한 부모 분리 경험이 어떠한지, 부모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떠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물리적, 심리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지만, 다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생존해 있는 가족에 대해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다.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부모 분리 과정 및 부모 부재 상황의 다양성과 이로 인한 남한사회 적응과정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김현경, 2013; 김현아, 방기연, 2012; 신현옥 외, 2011).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와 분리된 이유에 따라 상실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유형에 따른 심리적 외상이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학교교육의 부재

북한은 2012년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의무교육을 12년제로 바꾸어 교육 기간을 1년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김지수, 2013). 그러나 1995년 이후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식량 위기로 인해 학교교육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은 재북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은 재북시 43.7%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학교에 다녀본 청소년 중 73.6%는 소학교까지 밖에 다니지 않았다(남북하나재단, 2014). 학교에 다닌다고 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

평가'로 키우는 것을 공식적인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조정아, 2004).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의 학교를 다니며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의 학교생활에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주된 어려움이었다(남북하나재단, 2014).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일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재북시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데(김현경, 2013),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 부모와 함께 있었다라도 대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김현경, 2013). 이러한 점에서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학교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모두 남한 학교적응 과정에 취약한 것은 아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학업생활을 이루어 나가며, 교사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최경자 외, 2011). 이러한 적극적 태도는 남한 학교에서 보다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업 및 교사 관계는 학교 적응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살펴보고,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4) 정치·경제체제의 변화 경험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3조는 주체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의미는 자기운명을 자기 자신이 이끌어간다는 것이다(정웅기, 2010). 북한은 혁명의 주체로서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로 바라봄으로써, 대중의 생각과 중심이 수령이 되어야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정웅기, 2010). 북한주민의 삶의 중심은 수령이 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초기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

나, 사회통제의 강화와 생활총화의 참석률이 높아지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병로, 2014). 이처럼 북한주민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김병로,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201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청소년은 이전의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해 주체사상을 내면화하고 입국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반면,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폐쇄성이 약화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채 남한에 입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남한 사회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북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북한이탈 청소년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상이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부모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가치를 다시 형성해나가면서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다(Beck & Jennings, 1975; McDevitt & Chaffee, 2002). 부모의 부재는 이러한 과정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 및 시장주의에 대한 태도는 남한이 운영되는 정치경제적 체제라는 점에서 남한사회 적응과 연관된다.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이들의 정치·경제적 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죽음에 대한 연구는 죽음의 의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반응과 관련하여 상실을 다루었다(Sofka, 2004). 죽음으로 인한 상실에 대한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상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상실을 죽음으로 인한 상실뿐만 아니라 모호한 상실까지 포

함시켜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상실의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익숙하게 생활하던 환경까지 포함시켜서 다루고자 한다.

## 1) 모호한 상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심리적으로 부재한 경우, 혹은 심리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육체적으로 부재한 경우와 같이 모호한 상실로 인하여 슬픔, 혼란을 겪기도 한다. Boss(2007)는 이를 ‘모호한 상실(ambiguous loss)’이라 명명하였다. 모호한 상실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부재하지만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 부재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가족원이 생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분리되어 새로운 국가에서 삶을 시작하는 개인은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다(Rousseau, Rufagari, Bagilishya, & Measham, 2004; Solheim, Zaid, & Ballard, 2015).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하고 부모의 부재 속에서 남한에서 생활하지만, 이들이 부모와 분리된 이유는 다양하다. 재북시 죽음이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고 남한에 무연고로 입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에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무연고로 입국한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분리된 상황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다루지 못하였다(김현경, 2013; 신현옥 외, 2011).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모호한 상실은 슬픔을 복잡하게 만들고,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러한 아픔이 끝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Boss, 2010).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을 다루는 과정에서 죽음으로 인한 부모 상실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모호한 상실 또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생태학적 전환과 익숙한 환경 상실

상실의 개념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한 개인은 죽음뿐만 아니라 이혼과 같은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체장애와 같은 육체적 상실 혹은 신뢰나 안정감을 잃는 심리적 상실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 또한 상실이 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 또한 상실이 될 수 있다(최선재, 안현의, 2013; Sofka, 2013).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 및 남한 입국 과정에서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한다.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이란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던 환경 체계가 변화하는 주요한 전환을 일컫는다(Bronfenbrenner, 1979).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익숙한 환경 상실 및 생태학적 전환은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과 상이할 수 있다. 부모와의 분리 경험으로 인해 환경과의 상호작용 양상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중 일부는 어린 시절 부모 상실을 경험한다. 부모는 아동이 상호작용을 하는 주요한 대상이자, 가장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신념을 형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Bowlby, 1978), 부모가 속한 환경의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Beck & Jennings, 1975; McDevitt & Chaffee, 2002). 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애착과 의미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Herman, 1997). 이로 인해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변화시킨다.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은 다른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1979).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익숙한 환경 상실은 무엇인지, 그러한 상실을 남한사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3.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적응 관련 요인

#### 1) 가족

가족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요소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함으로써 낯선 환경 속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장창호, 2001).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은 낯선 환경에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적응과정을 홀로 거쳐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백혜정 외, 2006). 이렇듯 가족과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족의 부재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변화시키고, 2차적으로 가족의 부재에 대해 북한이탈청소년이 구성한 의미에 의해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변화시킨다.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주로 부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은 양부모 또는 한부모와 함께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의 49.5%는 양부모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46.1%는 한부모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4). 부모는 북한이탈청소년이 탈북을 하게 된 계기이자(이현심 외, 2011), 제3국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존재이며(백혜정 외, 2006),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이다(김형태,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부모와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남북하나재단, 2014),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백혜정 외, 2006).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가부장적 권위를 지니는 아버지 간 갈등을 제시한다(길은배, 문성호, 2003). 이는 부모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부모-자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사회에 입국하지

만, 부모가 생존해 경우가 있으며, 이들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김현경, 2013; 신현옥 외, 2011). 또한, 탈북과정에서 친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신현옥 외, 2011), 형제자매관계에서 지지를 받기도 한다(남북하나재단, 2014).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부모, 친척, 형제자매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학교

학교는 청소년기를 겪는 개인에게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청소년이 재북시 다니던 학교는 국가와 당에 충실한 인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으며, 학교 교사는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었다(조정아, 2004). 자신의 미래는 부모의 출신성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학교에서의 배움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다(김현경, 2013).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입국 이후 다니게 된 학교는 북한의 학교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진로를 위하여 배움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송진영, 배미경, 2015). 북한이탈청소년은 학교란 어떠한 공간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남한의 학교와 북한의 학교는 운영되는 제도와 문화적 맥락, 학교 구성원이 가진 생각과 태도가 상이하다. 재북시 다니던 학교에서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남한의 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다.

학교는 교사와 같이 부모가 아닌 성인과의 관계를 맺는 공간이자, 청소년기에 중요한 또래관계를 주로 형성하는 공간이다. 또한, 학업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듯 학교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선행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심을 갖는다. 그동안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교사, 또래, 진로와 관련된 학업측면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교사는 부모를 제외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가장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성인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이 고민이 있을 때 지지를 제공하고(남북하나재단, 2014), 또래와의 관계, 학업 및 진로탐색을 도와줌으로써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도와준다(김애진, 정원철, 2011).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신의 직업 선택을 위한 배움을 이어나간다. 특히나 이 시기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선택하게 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은 학업측면에서 자신의 부족한 학습경험, 그동안 자신이 배워온 것과 다른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진, 정원철, 2011; 이현심 외, 2011).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이기영, 2001).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이탈청소년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부모의 부재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서 학교적응을 다루거나, 학교에서 겪는 부적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뿐, 부모의 부재로 인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적응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부모의 부재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또래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또래 관계에 대한 욕

구와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또래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La Greca, & Harrison, 2005). 북한이탈청소년이 실제로 맺은 또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또래가 얼마나 되는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87.2%는 친한 남한친구가 1명 이상, 50.8%는 친한 북한친구가 1명 이상이었으며, 19.9%는 친한 남한친구의 수가 10명 이상이었다(남북하나재단, 2014).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중에서 교우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3.6%였다(최경자 외, 2011).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과 제3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는 교우들과 나이 차이가 나며(김애진, 정원철,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4).

또래와 관계를 맺는 능력은 부분적으로 아동기에 겪었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한다(Zimmermann, 2004).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경험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 이후 또래 관계의 양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에 거주하거나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또래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상실 자체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이 상실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또래관계는 달라지며(Fuligni, & Eccles, 1993), 부모관계에 대한 기억과 이에 대한 해석은 청소년이 발달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살펴보고, 또래관계가 부모에 대한 상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부모에 대한 상실은 그러한 경험 자체가 아닌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구성한 의미로 바라보고자 한다.

#### 4)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은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과 연관된다(권경득, 임정빈, 김덕준, 2011). 직장 및 북한이탈주민 모임 외에도 다른 남한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의 질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 양상이 달라진다.

북한이탈청소년이 주로 상호작용하는 지역사회는 학교, 여가시설, 종교 등으로 구성된다(남북하나재단, 2015). 학교와 여가시설이 청소년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웃과의 교류, 세금 및 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교류는 주로 그들의 부모가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기숙사나 그룹 홈과 같은 단체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업무를 보아야 하며, 이웃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종교를 통해서 남한사회 적응에 지지를 받는다(전우택, 1997). 종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받으며, 남한 생활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2009). 북한이탈청소년은 약 절반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 북한이탈청소년은 40.2%, 여성 북한이탈청소년은 48.8%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4).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 과정 및 남한거주 시에 종교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된다. 부모가 부재하지만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남한으로 올 수 있었으며, 남한에서의 삶이 불안할 때 신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다(김현경, 2013). 따라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요소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이 남한사회 적응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부모 상실을 경험하고, 생태학적 전환과정에서 익숙한 환경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한사회 적응과정의 양상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인적 특성과 상실경

험은 청소년과 환경 간 상호작용양상을 변화시키며,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 및 생태학적 전환 경험이 어떠한지, 이러한 경험이 남한 사회 적응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상실경험과 남한사회 적응과정 간 연관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연령이 15세 이상 21세 이하이며, 남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다.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라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4세 이하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으로 보거나(김현경, 2013; 신현옥 외, 2011),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9-24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청소년 문화를 주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으로 보고 있다(최경자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규정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보다 협소하게 바라보고, 15세 이상 21세 이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정하였다. 교과과정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요소가 상이하다는 점과 20대 중반이 되면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짧은 경우 남한사회 적응을 살펴보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10명이다. 성별은 여성이 7명, 남성이 3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남한에 입국하는 여성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거주 유형은 단독 세대 및 학교 기숙사였다. 단독 세대의 경

우 참여자C는 참여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였으며, 참여자 E, F, G는 국가임대주택이었다. 참여자 A와 J는 동거인의 단독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였다. 연구 참여자 10명 중 8명은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남한 입국 연도는 연구 참여자 모두가 2015년 이전이었으며, 남한에 거주한 기간은 2년 이하에서 5년 이상으로 다양하였다. 친부 생존여부 및 분리시기와 관련하여 참여자 B와 I를 제외하고는 친부가 생존해 있지 않았으며, 참여자 B와 I는 탈북과정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을 했다. 친모 생존여부와 관련하여 참여자 A, B, E, F, G, H, I는 친모가 생존해 있었으며, 참여자 C, D, J는 친모가 생존해 있지 않았다. 친모 분리시기는 재북시, 탈북시, 중국 거주시, 중국에서 남한입국 시로 다양하였다. 북한이나 중국에 가족원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참여자C와 참여자D를 제외하고 모두 한명이상의 가족원이 생존해 있었다. 참여자 중에서는 남한에 가족원 혹은 친척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B는 이모가, 참여자D는 언니가, 참여자I는 누나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에서는 양부모가 있는 경우가 존재했다. 참여자 C는 남한에서, D는 중국에서 입양을 경험했다. 대학생인 참여자G와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참여자H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 1                        | 2               | 3           | 4           | 5            |
|---------------------|--------------------------|-----------------|-------------|-------------|--------------|
| 참여자                 | A                        | B               | C           | D           | E            |
| 성별                  | 여                        | 여               | 여           | 여           | 여            |
| 연령                  | 16                       | 19              | 19          | 19          | 21           |
| 탈북연도                | 2012                     | 2012            | 2009        | 2004        | 2011         |
| 남한입국연도              | 2014                     | 2014            | 2010        | 2013        | 2014         |
| 현재 거주 유형            | 단독<br>세대                 | 학교 기숙사          | 단독<br>세대    | 학교<br>기숙사   | 단독<br>세대     |
| 동거인<br>유무 및 성별      | 남                        | 여               | -           | 여           | -            |
| 기숙사 거주경험            | ○                        | ○               | ○           | ○           | -            |
| 친부 생존               | -                        | ○               | -           | -1)         | -            |
| 친부 분리 시기            | 재북시<br>아동기 <sup>2)</sup> | 탈북 과정           | 재북시<br>아동기  | 재북시<br>유아기  | 재북시<br>아동기   |
| 친모 생존               | ○                        | ○               | -           | -3)         | ○            |
| 친모 분리 시기            | 탈북<br>과정                 | 남한<br>입국과정      | 재북시<br>아동기  | 중국<br>거주시   | 탈북<br>과정     |
| 북한, 중국 거주<br>기타 가족원 | 오빠                       | 언니,<br>여동생(16세) | -           | -           | 여동생<br>(16세) |
| 남한 거주<br>가족원 및 친척   | -                        | 이모              | -           | 언니          | -            |
| 입양 여부               | -                        | -               | ○           | ○           | -            |
| 재학 학년               | 고등학교<br>1학년              | 고등학교<br>3학년     | 고등학교<br>3학년 | 고등학교<br>3학년 | 고등학교<br>1학년  |

- 1) 확실치 않음. 유아기 시절 부모가 이혼하였고, 이 후 친부와 연락이 완전히 단절됨
- 2) 2세-6세를 유아기로, 7-11세를 아동기로 구분하였다.
- 3) 확실치 않음. 중국 입국 이후 친모와 분리되었고, 이 후 연락이 완전히 단절됨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 6            | 7                | 8               | 9               | 10                     |
|---------------------|--------------|------------------|-----------------|-----------------|------------------------|
| 참여자                 | F            | G                | H               | I               | J                      |
| 성별                  | 여            | 여                | 남               | 남               | 남                      |
| 연령                  | 21           | 21               | 15              | 18              | 20                     |
| 탈북연도                | 2011         | 2013             | 2013            | 2012            | 2011                   |
| 남한 입국 연도            | 2012         | 2014             | 2014            | 2013            | 2011                   |
| 현재 거주 유형            | 단독<br>세대     | 단독<br>세대         | 학교<br>기숙사       | 학교<br>기숙사       | 단독<br>세대               |
| 동거인<br>유무 및 성별      | -            | -                | 남               | 남               | 남                      |
| 기숙사 거주경험            | -            | ○                | ○               | ○               | ○                      |
| 친부 생존               | -            | -                | -               | ○ <sup>4)</sup> | -                      |
| 친부 분리 시기            | 재북시<br>아동기   | 재북시<br>아동기       | 재북시<br>유아기      | 탈북<br>과정        | 재북시<br>아동기             |
| 친모 생존               | ○            | ○                | ○ <sup>5)</sup> | ○               | -                      |
| 친모 분리 시기            | 중국<br>거주시    | 탈북<br>과정         | 탈북<br>과정        | 탈북<br>과정        | 재북시<br>아동기             |
| 북한, 중국 거주<br>기타 가족원 | 여동생<br>(19세) | 언니,<br>남편,<br>자녀 | 누나              | -               | 형, 누나,<br>남동생<br>(16세) |
| 남한 거주<br>가족원 및 친척   | -            | -                | -               | 누나              | -                      |
| 입양 여부               | -            | -                | -               | -               | -                      |
| 재학 학년               | 대학생          | 고등학교<br>2학년      | 중학교<br>검정고시     | 고등학교<br>3학년     | 대학<br>입시준비             |

4) 확실치 않음. 한 달 전 이모와 전화통화로 생존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모의 말이 사실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였음

5) 확실치 않음. 남한 입국 이후에는 북에 있는 사람과 연락 해 본 적이 없음



## 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각각의 연구 참여자는 2회의 면담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면담을 진행한 후 약 1주일 후에 두 번째 면담을 진행하였다. 1주일의 간격을 두고 면담을 진행한 이유는 이러한 간격을 통해서 첫 번째 면담과 두 번째 면담 간 관련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연구 참여자가 첫 번째 면담내용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Seidman, 2006). 다만, 참여자C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면담을 1회 진행하였고, 참여자H는 내성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면담을 3회 진행하였다. 면담은 한 회당 약 90분 간 진행하였으며, 이를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된 면담내용을 전사하고, 전사본을 반복하여 읽었다. 모든 면담은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전사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 자세하게 전사본에 담기 위해서였다. 이후 전사 자료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코드(code)를 붙이는 과정을 거쳤다(Saldaña, 2015). 다음으로 비슷하고 유사한 코드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범주 간 연관성(interrelationship)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각 범주가 어떻게 연결 될 수 있으며, 범주 간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과정이다(Saldaña, 2015).

이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남한 사회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생활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면담을 진행한 참여자

의 전사본을 읽고, 흥미로운 부분이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새로운 참여자와 면담을 마친 이후에는 참여자의 전사본을 분석하고, 이전 참여자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코드와 범주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상실, 익숙한 환경 상실을 경험했다. 부모 상실 중 어머니 상실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익숙한 환경 상실은 형제자매, 친밀감을 느낀 친구, 익숙한 가치관과 문화,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상실로 구분되었다.

#### 1) 부모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공통적으로 명확한 아버지 상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은 명확한 상실, 모호한 상실, 비상실 등 다양하게 구분되었다.

##### (1) 명확한 아버지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청소년마다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 참여자C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목마도 태워주고, 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는’ 존재였다. 반면에 참여자I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술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다 깨부시는’ 존재였다. 참여자H와 같이 ‘아빠가 죽은게 너무 어렸을 때라 이름만 기억나는’ 존재인 경우도 있었다. H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으며,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아버지의 죽음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해, 혹은 ‘아버지는 북한에 남겨둔 채 홀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던 참여자C는 ‘어느 날 아궁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감자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부

터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참여자B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일은 안하면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존재였다.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강한 북한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B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북한에 남겨둔 채 탈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B는 아버지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와 분리되게 된 계기는 다양하였지만, 현재 남한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구성한 아버지 상실의 의미는 모두 명확한 상실 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와 분리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아버지와 더 이상 만날 수도, 연락을 할 수도 없었다. 반면, 참여자B, I는 현재 북한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B와 I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모두 ‘폭력적이며 떠나고 싶은 존재’였다. B와 I는 생물학적 아버지는 생존해있었지만,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존재는 부재하였다.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와서 싸우고. 다 깨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게 힘들죠. 그게, 북한에서는 남자, 그. 옛날처럼 그, 여자가 남자한테 막 그러면 법이 또, 법이 그런게 없거든요. 폭력에 뭐 여기 경찰서처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그, 와이프니까. 아내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 있어가지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막 큰일 나요.

(16년 4월 25일 참여자I 면담)

## (2) 어머니 상실의 다양한 유형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아버지 상실이 모두 명확한 상실이었던 것에 반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은 다양하였다. 죽음 등으로 인해 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경우, 물리적으로 부재하지만 심리적으로 여전히 어머니가 존재하는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 경우, 어머니 부재가 일시적 분리이기 때문에 상실이 아닌 경우로 나뉘었다.

참여자C, D, J가 겪은 어머니 상실은 명확한 상실이었다. 참여자C와 J

의 어머니는 참여자가 탈북을 하기 이전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들의 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였다. 참여자D의 어머니는 ‘돈을 벌어서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지만, D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D는 아직 나이가 어린 자신과 언니가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을 두고 어머니가 떠난 것이라 생각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 이후 이들은 이 곳, 저 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이후 중국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양부모를 만나게 된 D는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를 찾고자 하지 않았으며,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 장사, 사업? 그 비슷한 거 해가지고, 그 피아노도 이렇게 하시고, 뭐 바이올린도 하시고 이렇게, 막 좀, 그런 잘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팔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계속 이동하는 그런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짐이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래서 중국에다가 놓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또 엄마가 새아빠 만나고 계셨고. 그리고 북한에다 두면 너무 어리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국에 두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략) 중국 온 다음날 어디 가셨거든요. 그러곤 안 오더라고요.

(16년 4월 28일 참여자D 면담)

다만, 실제로 D의 어머니가 D를 ‘짐이라고 생각해서’ 중국에 버리고 ‘새아빠’에게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참여자E와 면담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1년 전에 연락했는데 뭐, 사기, 사기 당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보기 싫어한다고 안찾는다고 엄마를 버려서 댁혀가지고 맘팔 같은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찾았는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저희를 넘겨준 사람이거든요 북한에서. 거짓말을 또 해가지고. 전 진짜인줄 알고 완전 실망해가지고, 집 다시는 안찾는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16년 3월 10일 참여자E 면담)

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경우와 달리, 일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현재 어머니가 생존해 있으며 어머니와 심리적인 연결 고리가 유지되고 있는 모호한 상실을 경험했다. 참여자E는 가끔씩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공부를 하여 남한에서 자리를 잡으면’ 어머니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자F는 올해에 어머니와 동생이 남한에 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지만, 조금만 있으면 엄마와 동생이 남한에 입국’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B는 현재 어머니가 남한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며, 하나원에 입소하면 어머니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시적인’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머니에 대한 상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있다가 한국 들어왔대요. 국정원 들어왔다고. 조사하는 사람이 엄마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왔더라고요. 처음에 여기서 이모랑 지내면서도 엄마가 올 거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엄청 외롭고 이러지가 않았던 거 같아요. 엄마 올 거니까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되겠구나.

(16년 4월 20일 참여자B 면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이 위의 두 가지 유형처럼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어머니와 연락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와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어머니와 가까운 미래에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어머니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어머니와 완전히 단절된 것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상실을 경험했다. 모호한 상실 ‘(ambiguous loss)’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Boss, 2007).

참여자A와 G는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탈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와 G의 어머니는 남한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들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힘들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살아있음에도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대상이었다.

참여자H와 I는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생존 또한 확신할 수 없었다. 참여자H는 탈북과정에서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고 이후에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참여자I는 이모와 통화를 통해 어머니가 교도소에 갔다고 확인했지만 이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H와 I는 어머니가 살아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남한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습은 어머니의 부재를 상실로 여기지 않고 일시적 분리로 바라보고 있는 B, E, F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H와 I는 현재 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확신보다는 소망에 가까웠다.

## 2) 생태학적 전환으로 인한 익숙한 환경 상실

### (1) 형제자매 상실

참여자C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는 모두 형제자매가 있었다. 참여자D와 I는 형제자매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다른 참여자의 형제자매는 북한이나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는 탈북과정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중한게 생각하는 형제자매에 대해 불가피한 상실을 경험했지만, 재복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제자매와 유대감이 없던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A의 오빠는 ‘깡패질을 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A에게는 자상한 오빠였다. 오빠는 A가 낯선 친구와 어울리면 ‘위험하다고 못

놀게’ 하고, 배가고플 때 ‘밥 먹으라고 용돈을 주는’ 존재였다. 참여자G는 언니와 함께 탈북 하였지만, 중국에서 시집을 가는 과정에서 언니와 떨어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언니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시집을 간 상황에서 G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 G는 시집간 집에서 도망쳐 나와 혼자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언니 상실을 경험했다. 언니와 함께 가고 싶었으나, 중국에서 북송경험이 있는 언니는 더 이상 ‘위험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계속 나한테 오겠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못하게 하고. 언니가 뛰쳐, 한번 뛰쳐나왔어요. 나를 만나겠다고. 그 집에서 못 가게 하니깐 이제. 뛰쳐나왔다가 하루 있다가 나를 못 찾겠으니까 들어갔어요 말도 모르고 하니깐. 근데 어디 갔었냐고 막 따지면서, 막 그러다 싸움도 나니까 그 집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샅는데 이렇게 더는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돈을 찾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언니가 이제 재간 없이 잡혀 나간 거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집에서 신고를 해서 잡혀 나간 게. 재간 없는 거죠 그거는. 누굴 탓할 것도 못 되고 뭐 자기가 국적이 없으니까.

(16년 03월 1일 참여자G 면담)

그러나 모든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신의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J는 형, 누나, 동생이 있었다. 형과 누나는 이복형제였다. 형과 누나는 ‘J의 엄마 때문에’ 자신들이 아빠에게 이쁨을 받지 못한다며 J와 동생을 미워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자 형과 누나는 J를 집에서 쫓아냈다. J는 탈북과정에서 형제자매 상실을 경험했지만, 이 사건이 J에게 심리적 외상을 주는 경험은 아니었다. J가 기억하는 형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며, 술 먹고 가끔 집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

그니까 맨날 형도 아빠처럼 술 먹고 가끔 들어와 가지고 때리고 막. 저희 막내 동생이 다섯 살인가. 지금은 죽었거든요. 다섯 살인가 그때인데 뭐,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때렸어요. (중략) 누나는 저희 누나는 엄청 그런 상처가 많아서 엄마를 막 욕하고.

(16년 03월 16일 참여자J 면담)

## (2) 친밀감을 느낀 친구 상실

청소년에게 친구는 가족만큼이나 가깝고 중요한 존재이다.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또래는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며,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이러한 친구들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하는 경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족을 따라서 탈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래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또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참여자J)’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자J의 경우 친구를 따라 국경을 넘는 경험을 했다. 참여자J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형과 누나가 있었지만, 서로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 J는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꽃제비와 어울리게 되었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그러한 공통점으로 인해 J는 꽃제비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고아원에 살면서 가끔씩 자신을 찾아오는 꽃제비 친구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아원 생활에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느껴졌다. J는 중국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꽃제비 친구의 말을 듣고 국경을 함께 넘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가 없는 꽃제비들은 잡혀도 죽이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J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자신은 남한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꽃제비 친구들은 남한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남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J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지만, 이렇게 살면 변하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남한으로 가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친밀감을 느낀 친구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저는 되게. 진짜 아무 것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생각 있었어요. 다시 거기 가면은 그냥 그대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상황이. 중국에는 뭔가 조금. 사람이란 게 그런, 자기가 좀 편한 데를 고르는데. 저는 되게 그래도 이분들 믿고 가보겠다 그런 생각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친구들과같이.

(16년 3월 16일 참여자J 면담)

북한에서 지내던 친구들이 가장 생각날 때는, 남한에서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귄 수 없을 때였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럴 때마다 북한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생각났다. 참여자D는 방학이 되면 중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특수한 경우였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는 북한과 중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였다. 참여자H는 북한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어렸을 때 축구를 배웠던 H는 또래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였다. 이곳에서는 ‘자신과 정말 친한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북한에서 축구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생각났다.

네.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축구하고 그랬어요. 같이 축구하는 게 제일 재밌었었어요. 북한에서 축구를 배웠었거든요. 인기 많았어요. 다들 저랑 편 한다고. (중략)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누구랑 노는 게 좋은데. 내가 놀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게임. 근데 게임이 막 좋지는 않아요.

(16년 5월 2일, 5월 6일 참여자H 면담)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 친구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 이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친구 상실은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참여자J와 같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친구 상실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던 반면, 참여자H와 같이 부모와 함께 탈북하기 위해 친구상실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친구상실을 경험하게 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친밀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 (3) 익숙한 가치관과 문화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왔던 가치관과 문화의 상실을 경험한다.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국가를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치관과 문화의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식생활 방식과 같이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요소부터 그들이 가진 생각과 태도까지 다른 점을 느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억하는 북한의 모습은 ‘돈이 최고 (참여자 B)’로 우선시 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조되는 사회였다. 물질주의는 경제적 측면이나 물리적 안전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Inglehart & Abramson, 1994). 정부가 배급하는 식량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물을 캐거나, 금을 캐서(참여자G)’ 시장에 팔거나, 밀수를 통해 돈을 벌어야 했다. 생계유지만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중국에 갈 수 있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뇌물을 통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남한입국 이후 탈 물질주의 가치관을 접하게 되었다. 탈 물질주의는 경제적 측면이나 물리적 안전이 아닌 자유, 자기표현, 삶의 질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태도이다(Inglehart & Abramson, 1994). 남한에서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학교 선생님

은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지라고 교육하였다. 자신이 그동안 의심해 보지 않았던 물질주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근데. 되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되게.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다른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고집이 좀 있다고 해야 하나? 금방 왔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 힘들었던 사람한테 이제는 꿈을 키우면서 살아라. 이런 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지O하네 이런 생각. 이렇게 들리거든요.

(16년 3월 16일 참여자J 면담)

남한에서의 생활은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풍족했다. 그럼에도 가끔씩 북한에 거주할 당시 먹던 음식이 생각나곤 하였다. 북한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서 어렵게 그 음식을 파는 곳을 찾아가보기도 했지만 북한에서 먹던 맛이 나지 않았다.

제일,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뭐 인조고기 밥에 두부밥에 그런 거. 인조고기라는 게 이제 콩, 콩, 그 무슨 콩이지? 그 동글동글한거 있잖아요. 그 콩을 이제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짜고 그 찌꺼기로 이제 고기를, 인조고기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오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다 밥을 비벼서 넣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고춧가루 막 뿌려가지고 매콤하게 해서. (중략) 그게 한국에는 없어요. 어디, 북한 쪽에서 아마 넘어오나 봐요. 하여튼 파는 데가. 그 국지가 있어요. 아무데나 가면 못 사요. 파는 거기 있어서 거기 딱 사고. 더 어려워요 사기가. 근데 거기서 파는 거도 맛이 안 나더라고요. 달라요 맛이.

(16년 3월 1일 참여자G 면담)

#### (4)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는 국가의 상실을 경험한다. 대개 북한이탈청소년은 재북시 생계유지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 중국 거주 시에도 함께 탈북한 성인의 보호를 통해 복송될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나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북한에 거주한 북한이탈청소년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정당하게 소속될 수 있는 국가의 소중함을 느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탈북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탈북을 하자는 어머니의 제안을 따르기 위해 탈북을 한 경우,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번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남한까지 오게 된 경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가 부재했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탈북한 경우 등이 있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다양했지만, 그러한 다양성 속에는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다(참여자A)’는 공통점이 있었다. 참여자G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머니 혼자서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다. G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탈북을 하게 됐다.

오빠 언니 이렇게 세 명 있었는데. 그냥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오빠는 맨날 술 마시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 재간 없이 이제 엄마한테는 이제 돈을 조금 보내야겠고, 그래서 그냥 돈 벌 마음에 넘어선 왔어요. 근데 재간 없이 그냥 시집을 가게 됐어요.

(16년 03월 8일 참여자G 면담)

중국에 간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중국으로 시집을 가게 된 참여자G는 ‘자신이 도망가면 자신을 돈 주고 산 남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남편에게 항상 감시받고, 갇혀서 살아야’ 했다. 팔려간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중국에서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주민증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생활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었고, 이러한 삶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힘들게 만들었다. 자신이 정당하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국가의 소중함을 깨달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잡히면 죽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남한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는 상실한 국가를 대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여기, 중국에서는, 여기로 치면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버스타도 신분증 있어야 되고, 기차 타도 신분증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거의 한 1년 정도 우울증 앓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학교 가지만.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지. 나는 이렇게 못 산다고. 근데 그때는 한국 갈 생각 안하고 있었고. 미래가 없는 게 제일 잔인한 거 같아요. (중략) (D가 원래 출국하기로 했던 날에 출국한) 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잡히고. 또 앞 팀이 잡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잡히면 그냥. 확률이 50%니까.

(16년 4월 22일 참여자D 면담)

부모와 분리되어 중국에서 거주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혹은 성인인 친척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해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꼈다. 성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거주했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또한 중국에서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성인의 보호를 통해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보다 쉽게 숨길 수 있었다. 반면,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밀입국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제재를 가하려는 국가에 직면해야 했다.

## 2.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

부모와의 분리, 생태학적 전환으로 인해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차이를 보였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학교 적응, 또래 관계형성, 타인에 대한 불신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 1) 학교 적응의 어려움

남북하나재단(2014)에 따르면, 남한 입국 이후 거의 모든 북한이탈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고등학교과정에 속해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86%는 한겨레학교를 포함한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며, 23.8%는 탈북학생만 다니는 대안학교 혹은 기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대안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대안학교에 다니게 된다. ‘부모가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학교로 안가도 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참여자F)’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그, 하나원에 있을 때, 그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그 살짝 그냥, 나쁜 얘기로 하면 호객행위 같은. 와서 저희 각 학교 홍보를 해요. (중략) 선생님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학교 와라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어디를 갈지.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학교로 안가요. 이제 엄마 집으로 가서. 놀다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거나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그 안에서요 이제 무연고 학생들을 책임지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셋넷학교 선생님이랑 친구분이시거든요. (중략) 학교가 괜찮은 거

같다 가보라 그래가지고.

(16년 04월 14일 참여자F 면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차별, 또래문화 소외, 남한의 또래와 경쟁하는 것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김애진, 정원철, 2011). 대안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보다 낮은 환경이다. 북한이탈청소년 혹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로 학생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부모 부재에 대한 열등감, 기숙사로 한정된 거주 공간, 진로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구분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1) 지나친 관심에 대한 거부감

대안학교에서는 부모가 부재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하여, 방과 후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일과 관리 및 진로를 위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과 관심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지원과 관심에 대하여 거부감이 들었다. 이들은 부모 부재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에 비하여 더 극복하기 쉬운 문제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학교에서 바라보는 자신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부모의 부재를 이유로 다른 북한이탈청소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자신을 ‘더 챙겨주려고 (참여자E)’ 하였다. 스스로 잘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을 보호 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더 개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다.

참여자E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살지 않았다.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부모가 거주하는 집으로 가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갈 곳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었다. E가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할 때면, 학교 교사가 남은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다. 교사가 자신에게 도시락을 챙겨줄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참여자I는 자신이 ‘부모 없는 아이’라는 것이 창피했다. 부모의 부재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와 다른 교사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다. 교사가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행동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느껴졌다.

여기 샘들은 좀 더 친하다고 하나. 그래요. 그리고 또 저 혼자 온 걸 아니까 샘들이 더 관심을 갖죠. (중략)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중략) 어쨌든 여기 애들은 다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심 갖는 거예요 저한테. 좋긴 한데 그냥 애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또 왜 나한테만 더 간섭하나 그럴 때도 있고. 좋긴 좋아요.

(16년 04월 18일 참여자I 면담자료)

## (2) 벗어나고 싶은 보호의 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북한 및 중국에서 거주했다. 이들은 남한 입국 이후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제도 및 관심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다. 특히나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집단생활을 오래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생각하였다.

구애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숙사는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 밤 늦게까지 놀 일은 없지만 그 규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중략) 제가 하나원에서 나와서부터 작년까지 근 4년 동안 이제 공동체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16년 4월 14일 참여자F 면담)

부모가 부재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하나원 교육을 마친 이후, 대안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된다. 참여자E를 제외한 이 연구의 참여자는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해본 경험이 있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기숙사에 살면 ‘돈을 아끼고 (참여자E)’, ‘맛있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참여자C)’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숙사에

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북한이탈청소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감선생님,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와의 불화,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지만 계속되는 단체생활의 싫증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숙사가 더욱 답답했던 이유는 ‘방학이 되면 부모님 집으로 가는 다른 친구들 (참여자B)’과 달리 자신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감선생님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하루 일과를 관리해주고, 식사와 옷 등을 챙겨주는 존재였다. 참여자J처럼 ‘자기가 잘하면 답답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사감선생님의 존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있어서 답답한 존재였다. 참여자I는 사감선생님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잔소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며, 참여자B는 ‘쉬려고 잠시만 누워있어도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감선생님이 스트레스였다.

사감선생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같이 동거하는 룸메이트와의 관계도 기숙사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 ‘스트레스를 주는 (참여자D)’ 룸메이트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숙사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이유였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건 고3 때문이 아니라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같이 방 쓰는 언니가 (제가)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남자랑 영상통화하고 이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 그런 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16년 04월 22 참여자D 면담)

룸메이트와의 갈등은 서로 다른 연령이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는 상황과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가치관은 기숙사 내에서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뒤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친구를 사귀는 어려움과도 관련되었다.

사감선생님, 룸메이트와의 갈등이 없더라도 단체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기숙사를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요소였다.

함께 거주할 부모가 부재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기숙사 외에도 그룹 홈, 선교사와 동거 등 지속적으로 단체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의 공간이 없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참여자F는 자신을 구속하는 규칙, 누군가와 계속 같이 사는 생활에 지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참여자C는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비어있는 이모 집으로 가서 혼자,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하루를 보냈다. C와 함께 남한에 입국한 이모는 남한에 입국 후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 살던 집은 빈 집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기숙사를 나갈 수도, C와 같은 공간도 없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기숙사는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공간이었으며, 이 때문에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 (3)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진로의 부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대학 진학,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변에서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좋아하는 게 딱히 생각나지 않는(참여자H)’ 상황에서 진로에 대하여 결정하는 과정은 어려운 일이었다.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정신없이(참여자G)’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간 이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에 직업에 대하여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직업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아니었다.

아 그게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북한은 상관이. 진짜 한국에 오니까 직업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북한에는 밀수, 밀수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산 쪽이 해산이라서. 국경이거든요 중국하고 강 하나두고. 거

기, 그, 어머니가 밀수 해가지고요. 철, 동, 막 이런 것들, 약초, 막 마약이란 이런 거를. 잘살고 못 살고가 직업이랑 상관이 없고. 평양은 좀 다른 거 같지만. 근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냥 다들 약초 캐거나 밀수하거나 그러거든요.

(16년 04월 18일 참여자H 면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진로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중요하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직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갈수록 ‘내가 될 수 있을까? (참여자A)’ 라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다. ‘키도 크고 뭐든지 잘하는 (참여자J)’ 남한 청소년들과 같이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이 되기도 하였다. 남한 사회에서 대다수의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도 대학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과연 대학에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학이 수월 (참여자D)’하기 때문에 입학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대학의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주변에서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퇴를 하는 경우도 꽤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고민이 들 때마다,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해 줄 부모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 자녀가 직업과 관련된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며,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속에서 직업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Marshall, Young, Domene, & Zaidman-Zait, 2008; Turner & Lapan, 2002).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부재는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스스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다.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학교를 그냥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만 둘지. 아니면 대학교 들어갈지. 대학교 나와도 막상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지금 생

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또 이렇게, 엄마라도 옆에 있으면 일일이 '어, 너 대학가라' 말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갈등이 많을 때도 있어요. (중략) 정확한 선이 안서요. 한국에 와서. 그냥 이대로 그냥 공부나 조금씩 하다가 뭔가를 하고, 진짜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나면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가도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16년 03월 01일 참여자G 면담)

## 2) 또래 관계형성의 어려움

### (1) 만나기도, 사귀기도 어려운 남한친구

중국에서 다른 나라를 가기위해서 고민을 하였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한국은 '말이 통하지 않고 너무 낯선 다른 나라(참여자E)'보다 친근한 곳이었다. 중국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다는 것이 어려웠다. 남한에 오면 말도 통하고, 정식으로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존중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래 남한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참여자I는 남한에서 지내며 북한말을 고치고 싶었지만, 남한친구를 사귄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말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I가 다니는 대안학교에는 북한이탈청소년 혹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또래 남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학교 오면 말 절대로 못 고쳐요. 다 북한 애들이라서. 서로 말하면 그냥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북한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절대로 못 고치는 거 같아요.

(16년 04월 18일 참여자I 면담)

그러나 일반학교에 다닌다고 하여 남한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한 친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하여 배타적이었다. 일반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H은 일반 학교에서 남한 청소년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되게 열 받게 많이 하는’ 또래와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자신이 싫다고 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친구들에게 화가 나지만, 폭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였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때릴 수가 없는 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열 받게 해가지고. 일반학교 다닐 때 애들이 열 받게 하더라고요. (중략) 일반 초등학교요. 애들이 되게 열 받게 많이 하더라고요. (중략) 되게 짜증나게 했어요. 좀 놀리고. 장난이라도 좀 되게. 계속 하니까. 그 때 그 학교에 저 혼자 북한 사람. 다 때려주려고. 삼촌한테 여기 안다니겠다고.

(16년 04월 26일 참여자H 면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 친구는 만나기도, 사귀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만나는 남한 사람은 대부분 성인이었다. 그러한 성인조차도 대안학교 교사, 교회 사람으로 매우 제한된 사람들이었다. 참여자J는 첫 번째 면담을 마치고 나서 연구자에게 북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안 무서운지’ 물었다. J는 남한에 입국했을 당시에 ‘자신에게 말을 시키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밖에’ 없는 경험을 하였다. ‘교회 사람도 아니면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였다. 참여자G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였으며, 이후에 결혼을 하더라도 남한 사람과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남한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자신을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냥 친구, 밥이나 먹고 그런 친구들은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있다가나 그런 남자 친구는 없어요. 별로. 그리고 뭐, 남한에서 뭐, 또 온전한 사람이 잘생기고 그러면 남한 애들 만나지 북한 애들 안

만날 거잖아요. 남한 사람은 가깝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좀 우리를 무서워하고. 이상하게 보니까.

(16년 03월 08일 참여자G 면담)

(2) 같이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고향친구

남한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은 고향친구를 통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정서윤, 2015). 고향친구는 북한 거주, 탈북 과정, 중국 거주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대상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또한 주로 만나는 친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이나 조선족 친구였다. 북한이탈청소년과 조선족 친구는 자신과 처한 상황이 비슷했으며, 자신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였다. 같은 고향으로부터 온 친구는 ‘옛날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참여자A)’ 존재였다. 중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참여자D는 중국의 친구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였으며, 방학이 되어서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친구들도 한국에 많이 오고, 조선족들이 이미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개네들도 한국에 오고 이러니까 만나고. (중략) 중국에도 막 QQ<sup>6)</sup>라는 카톡<sup>7)</sup>같은 게 있거든요. 페이스북<sup>8)</sup> 같은 것도 있고.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계속 친구들이랑 얘기도하고. 나 이번에 한국 간다 이러면 그래 만나 이려고 만나고.

(16년 04월 28일 참여자D 면담)

그러나 모든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고향 친구에게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남한친구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청소년

6) Tencent QQ. 중국의 메신저 중 하나.

7) 카카오톡

8) facebook

이나 조선족 친구와도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안학교에서는 같은 반 친구라도 나이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부모가 없다는 열등감은 친구를 사귀게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뢰감 상실 경험으로 인해 또 다시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비밀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교우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최경자 외, 2011). 이들은 학교 내 교우관계에서 특별한 갈등상황이 없기 때문에 교우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는 사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타인에 대한 불신감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A와 G는 어머니가 북한에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A와 G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가 체력적으로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상황은 A와 G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도 비슷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체력적으로 약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참여자 G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중국에서 밀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오빠는 술만 마시며 방황했고, 언니와 G는 생계유지를 할 수 없었다. 결국 G는 언니와 함께 ‘재간 없이 중국으로 시집을 가게’ 됐다. 먹고 살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자신을 판 것이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오늘 못 벌면 내일은 못 먹는’ 삶이 싫었던 A는 집을 떠나서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자기가 중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A는 아줌마를 따라 중국에 가게 되었다. 중국에 가서야 A는 ‘그 여자가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중국에 있는 ‘작업장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 A는 우연한 기회로 작업장을 나올 수 있었다.

그 사장님이, 그니까 그 같이 있던 북한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들이 한 언니가 거기 자유를 안주고 그러니까 창문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한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명은 허리 다치고 그랬는데. 사람 죽었으니까, 그 신분증 없으면 화장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는 거기다 두고, 우리는 도망 갈 형편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사장님)가 한국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보내주겠다 하고 우리를 브로커들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브로커가 그 목사님들한테 애들 있는데 사겠냐고 한 거예요. 그니까 목사님들이 우리를 사겠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저희를 사서 한국에 보내셨어요. 그 언니가 죽지 않았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겠죠?

(16년 03월 05일 참여자A 면담)

이렇듯 사람이 사람에게 의해 사고 팔리는 경험, 자신이 누군가에게 팔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만들었다. 사람에 대한 불신감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도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 같은 고향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으며, 같이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결국엔 남 (참여자A)’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달리 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C, D, J는 다른 참여자에 비해서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보다 빠르게 극복해 가고 있었다. 이는 뒤에서 다룰 가족의 재구성과 관련된다. 명확한 어머니 상실은 남한에서 새로운 부모를 맞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특히 불신감을 보다 빠르게 이겨내도록 하였다.

#### 4)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지원금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돈을 벌어야 했다. 북한이나 중국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는 돈이 보다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경험한 참여자는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머니에 대해 자녀로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활동을 했다.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이들이 어머니와 심리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행동이자, 심리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Solheim et al., 2015).

참여자A는 탈북한 이후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남한에 입국하고 1년이 지나서 자신이 살아있으며, 남한에 살아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릴 수 있었다.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지만, 어머니의 생활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저 기뻐할 수는 없었다. 겨울 방학이 되어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기간 동안 A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제가 처음 연락했을 때는 많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돈 보냈어요. 그 후로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중략) (어머니께 돈을 보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거죠. 사실 혼자 살면 돈 별로 안 들어요. 돈 나오는 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혼자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 이랑 연락도 되고. 그래서 돈 보냈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서 돈 보내고 그랬어요. 그냥 식당 같은데서 일도하고. 그 공장 같은 데서 포장하는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뭐 별로 돈 필요 없어요. (중략) (최근에 어머니가 생각난 적은) 없어요. 최근에 전화 통화 한 적 있으니까. 그니까 좀 안심 된 거죠. 내가 연락도 못하고 그랬을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연락하고 나니까 내가 돈도 좀 보태줬으니까. 그러면 생각하거든요 이

거면 얼마만큼 살 수 있겠다.

(16년 03월 13일 참여자A 면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참여자G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과 일을 하면서 ‘많이 마셔야하는 술’ 때문에 힘이 들었다. 그러나 돈을 벌어야 중국의 아들이 있는 집에 돈을 보낼 수 있으며, 또한 아들을 보러갈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G는 시집을 간 중국의 집에서 아들을 한 명 낳았다. 남한에 입국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남편이 ‘나이가 조금 있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는 대를 이어야’ 해서 데려올 수 없었다. 자신이 떠나온 상태에서 그 아이까지 데려오는 건 염치없는 일인 것 같았다. 그러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G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북에 남겨진 어머니, 중국에 남겨진 아들을 생각하면,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제가 한국 온 거 알고 하니까. 되게 내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건 다 토의가 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애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와서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가서 보고. 집이 좀 어렵고 하니까 가서 나도 또 알바해서 벌은 것도 있고 하니까 가서 도와도 주고. 또 애가, 애를 키우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또 엄마인데 모르는 척할 수는 없고. (중략) 힘든 때가 많아요. 재간 없이 견뎌야죠 뭐. 어머니에 비해, 어머니가 거기서 고생하는 그, 그거에 비해서는 내가 여기서 완전. 완전 행복한거죠. 돈도 뭐 일하면 벌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엄마가 일을 못하고 하니까. 또 일을 해봤자 돈도 안 줘요.

(16년 03월 08일 참여자G 면담)

## 5) 정체성 혼란

### (1)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한 초기 새로운 환경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참여자 F).’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입국한 남한은 ‘말은 통하면서도 어색한 (참여자 G)’ 나라였다. 남한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참여자 F)’이 많아졌다. 자신을 이방인으로 보는 남한 사람들의 시선, 정부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은 없지만 자신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자D의 친구들 중에서는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비를 평생 타 먹으면서,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었다.

부모의 부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부모 상실은 단지 자신을 보호해 줄 성인의 부재가 아닌,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연결고리에 대한 상실이었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위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 했다. 남한 입국 이후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지 (참여자F)’였다.

### (2) 잘하는 게 없는 나

자신의 또래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이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 거주할 때와 탈북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대개 ‘육체적 고통’이었다. 남한에 입국한 이후 겪는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었다. 남한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또래와 경쟁을 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이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친구와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

정이 점차 커져갔다.

지금까지 겪은 거는 솔직히 정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거였거든요. 물론 정신적인 것도 좀 있지만 솔직히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힘들게 산 넘어 오고. 뭐 이제 숨어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중략) 근데 여기 와서 딱 봤을 때, 어 정말 여기 와서 봤는데 다 이쁘고, 여자애들 다 이쁘고, 키도 다 크고. 거기다 이제 뭐 공부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몇 십 년을 먼저 했으니까? 비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다보면 이제 내 자신이 점점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16년 03월 10일 참여자F 면담)

### 3. 어려움 극복과정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간다. 해체된 가족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변 사람의 도움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으며, 남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 1) 가족의 재구성

##### (1) 가족주의 가치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참여자D)’이라 생각하였으며, 이들이 원하는 가족의 모습은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강하고 (참여자C)’, ‘아버지가 생계부양자 (참여자A)’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이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이유는 이들이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북한에서 경험하였던 가족의 모습은 그리 화목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보고 자라면서 (참여자G)’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참여자G 참여자는 누군가를 믿고 평생 같이 사는 것, 특히나 그 대상이 남자라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우고’, 무엇인가를 이뤄나가면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정 폭력이나 해체를 경험한 다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했던 가족의 모습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서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였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생각할 때 결혼은 선택이 아닌 ‘다들 하는 (참여자D)’ 일이었다.

결혼을 해야죠. 제가 친한 친구도 많고 하지만 가족은 다르잖아요. 진짜 내편이고. 우리 양부모님 보면서 ‘아 부부가 좋구나. 저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했거든요. 또 다들 결혼 하니까. 여기 선생님들도 아직 안한 사람도 있지만 다들 하거든요. 다들 결혼도 하고. 저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돈을 벌고.

(16년 04월 22일 참여자D 면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이루고 싶은 가족의 모습은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강한 가족이었다. 청소년 시기를 부모와 분리되어 살아가면서, 이후에 자신이 부모가 된다면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남한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만약에 부모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모가 된다면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다. 가족끼리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은 로망이 (참여자C)’ 있었다. 남한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겪은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끈끈한 가족’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졌다.

제가 부모랑 없잖아요. 없이 보지 않고 저 하나만. 그리고 많이 아

프잖아요.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어,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런 거. 되게 가정적이고. 저는 좀 가족끼리 끈끈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아들, 딸을) 골고루 키워보고 싶고. 근데 딸을 더 많이 원해요 제 상태에서는. 저는 엄마가 빨리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 못 받은 거, 같이 딸 같이 다니면서. 로망 있어요.

(16년 03월 12일 참여자C 면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혹은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상실한 가족의 빈자리를 남한에서 다시 구성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재구성의 모습은 그들이 어떠한 상실을 겪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상실의 유형에 따라 새로운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남한에서 가족과 재회를 소망하기도 하였다.

## (2) 새로운 부모가 생긴 기쁨

연구 참여자 중에서 입양을 통해 새로운 부모를 만난 참여자는 참여자 C와 D였다. 참여자C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 몸이 아프셔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하여 명확한 상실을 경험했다. 형제, 자매가 없던 C는 남한에서 오롯이 혼자 삶을 살아가야 했다. 양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C는 남한에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학교 있을 때. 이런, 저희들 대안학교 같은 건 축제 있어요. 1년에 한번씩. 저희를 알리는 그런 거. 그 축제 때 보러 와서 부모님이 없는 걸 알았나 봐요. 다른 애들은 와서 꽃을 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저는. 그때 혼자 나와서 독창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걸 보고서는 저를 보는 순간. 엄마 되어주겠다고 그런 맘을 먹었대요. 꼭 안아주면서 엄마 해줄게, 내가 엄마 해줄게 이제부터.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국 와서 한 달 만에 그 엄마 만났어요. 오빠도 있고 저랑 4살차이. (중략) 학교 행사할 때마다 엄마가 오거든요. 엄마가 와서 선물도 주고, 그래도 저한테 엄마라는 게, 마음

상으로 양엄마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든든해요. 나 혼자 아니라는 거. 나 양엄마 있으니까. 아니면 양엄마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버텼을지 그런 거 있어요. 힘이 되는?

(16년 3월 12일 참여자C 면담)

참여자D의 부모는 D가 6살 때 이혼을 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D는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고 이름만’ 기억할 수 있었다. 이혼 후에 D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들은 소식이 없었다. D는 중국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후,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양부모님 덕분에 D는 ‘친부모님을 많이 생각 안하고 잘 살 수 있었다.’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이 1년, 1년? 1년정도 운영되고 또 고아원 자체가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고아원에서 만난 분이 양부모님을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그 분들이랑 쪽 살았죠. 그 다음부터. 7년. (중략) 친부모님을 많이 생각 안하고 잘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16년 4월 28일 참여자D 면담

참여자C와 D처럼 부모에 대하여 완전히 단절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 탈청소년은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이들은 친부모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족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었다. 입양을 통해 친부모의 빈자리를 양부모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친부모 상실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느꼈지만, 새로운 부모의 존재를 통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의 재구성을 이루어나가고 있었다.

### (3) 남한에서 가족과의 재회를 소망

참여자E는 ‘이렇게 까지 엄마와 오래 떨어지게’될 줄 몰랐다. E는 중국에 잠시 건너가 돈을 번 뒤, 다시 어머니가 계시는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북한에 돌아가려 할 때에는 자신이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바에야 남한으로 가서 돈을 더 벌어서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한에 입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해 보니 중국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남한에서 ‘엄마를 잘 모시기’ 위해서는 일이 아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나가면 제가 좀, 이런, 징역은 아니고, 거기 가기 전에 가는 단계 있잖아요. 되게 낮은 단계.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집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아니다 싫어가지고. 제가 그 동안에 번 돈을 다 집에다 보내고 저는 그냥 아예 빈몸으로 한국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넘어올 때는 공부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동생하고 어머니만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1년만 기다리라고, 아 3년 기다리라고 했나, 1년 기다리라고 했나. 그렇게 말해놓고 제 친구 삼촌하고 통화하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왔거든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자면 공부도 해야 되고, 제 체력 가지고는 계속 그런 노가다 같은거 일 해가지고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와서, 일단 배워야 되겠다. 내가 배워야 엄마도 잘 모실 수 있다 해서 오자마자 바로 학교를.

(16년 3월 3일 참여자E 면담)

참여자F 또한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와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F의 동생은 ‘자신보다 공부를 잘’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F와 동생 모두 학교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F는 학교 대신 일을 해야 했다.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F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하루라도 어린 나이에’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들자 동생이 빨리 남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F가 생각할 때, 동생이 남한에 입국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했다. 한편으로 F는 남한에 넘어온 동생에게 자신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F는 공부가 어렵지만 ‘하기 싫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했다. 탈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에서 다시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가족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동생 데려오고 싶은데, 공부시키고 싶은데. 올해 3월 달에 원래 오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에 북한이라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올 수 있을는지. 기다리고 있긴 한 데. (중략) 만약에 안오면 엄마랑 같이 들어오겠죠. 어차피 들어오면은 다 연락이 오게 되어있으니까. 국정원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찾은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먼저 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식이 오면은 이제 그, 국정원에서 전화가 와요. 딸이 왔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아는 언니도 여기 와서 엄마를 만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문제가 아닐까.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하고.

(16년 4월 14일 참여자F 면담)

참여자E와 F가 가족과 재회를 꿈꾸며 남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던 이유는 이들이 어머니의 부재를 상실로 바라보지 않고 일시적 분리로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다. 이들은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 커졌으며, 남한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 2) 인적 지원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함께 남한에 넘어온 가족 구성원, 학교 선생님, 교회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시작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 (1) 함께 남한에 온 가족 구성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중에서는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원이 남한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 B는 이모가, D는 언니가, I는 누나가 함께 남한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형제자매나 친척은 낯선 환경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이며,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떠나신 후 계속 함께했던 언니는 참여자D에게 있어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매일같이 싸우면서도 언니를 엄마처럼 따르면서 D는 남한 생활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언니가 정부로부터 집을 받으면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자 I는 북한에서 남한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누나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부모가 없어도 급한 일이 생기면 누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자B는 이모와 함께 입국하였다. 이모가 남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지만, ‘통화를 엄청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다만 이모에 대한 B의 느낌은 D와 I가 언니, 누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달랐다. 이모는 ‘친척이지만 가족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통해 B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에 이모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모는 결혼하셔서. 한국 와서 한국 분이랑 결혼하셔서 자기 집에서 살고. 저는 그냥 하나원 나오면서 학교 들어왔어요. 또 친척이긴 하지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모랑은 통화를 엄청 하는데, 이모부랑은

안 친해요. (웃음).

(16년 04월 12일 참여자B 면담)

(2) 엄마 같은 학교 선생님

대안학교 교사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존재였다. 교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생활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었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먼저 교사에게 이를 말하였다. 교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생활까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 (참여자C)’ 고민하였다. 교사는 혼자 사는 청소년에게 ‘관리비를 내는 것 (참여자F)’을 알려주고, ‘음식을 챙겨 (참여자C)주는 것과 같은 도구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참여자J)’ 존재로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참여자 J는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강한 시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변화할 수 있었다. J가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가면서였다. 자신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또래들을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J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준 학교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섬기는 거요.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잘 섬겨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해도 잘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게 편해지고 막. 신기한 분이에요. (예전에는 제 상태가) 심각했는데, 그 분은 다 이해해준다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상담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막 그랬어요. 그 분이 이렇게 필리핀 가는 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없었다면 필리핀도 못가고 결국. 학교와서 되게 많이 아들처럼 챙겨주셔가지고.

(16년 3월 26일 참여자J 면담)

### (3)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교회사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종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신의 존재는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로 느껴졌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는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교사나 친구는 결국 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지전능하며 자신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는 신의 존재는 낯선 사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로 다가왔다. 교회에 다니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친구처럼,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대상(참여자 A)’인 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참여자G에게 신은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존재로 다가왔다.

이게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게 조금. 감시당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아 내 아픔까지도 알아주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던 거 같아요.

(16년 03월 08일 참여자G 면담)

교회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의 또래를 사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참여자J는 종교생활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비밀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귄 수 있었다. 탈북을 할 때, 중국에서 거주할 때 겪은 경험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강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은) 아는 교회 분이 있거든요. 동생들이랑 누나가 있어요. 많이 친하다 보니까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분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중략) (어려운 일이나 비밀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 드렸던 OOO 누나가. 그분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친하니까.

(16년 03월 16일 참여자J 면담)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남성은 40.2%, 여성은 48.8%가 종교를 갖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4).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필요하였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종교에 심취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종교라는 범위 내에서 대인 관계를 맺을 때에는 같은 종교인이라는 전제로 인해 보다 쉽게 사람을 사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종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영역이자,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 (4) 고마운 형사님과 정착도우미

하나원에서는 남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남한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을 가지고 있지만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마치 '1살 어린 아이 (참여자F)'처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게 느껴진다. 자신을 보호해 줄 성인이 부재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이러한 어려움에 더욱 취약하다. 낯선 환경에서 이들은 형사와 정착도우미의 도움을 통해 남한에서 생활하는 법에 대하여 익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나원에서 금방 나왔을 때 이제 한국에 발을 디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한달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도우미 아줌마를 한 명씩 붙여줘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동사무소 가서 뭐 어떻게 떼고, 뭐도 하고, 뭐 할게 많잖아요. 신분증도 내고 뭐. 집에 대해서 뭐도 하고 하니까. 그 아줌마들 붙여. 근데 되게 잘 해 준거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아줌마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리고 뭐 형사님들도 한명 씩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나와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중략)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형사님들을 하나씩 붙여 줘요 경찰서에서. 누가 이렇게 뭐 '협박하는 사람은 없냐',

뭐 어디 '사기당하거나, 사기 당한일은 없냐' 이렇게 가끔 밥 먹으면서 형사님들이 불러서 밥 먹으면서 물어보거든요.

(16년 03월 01일 참여자G 면담)

### 3) 제도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적응을 돕고 있었다. 제도적인 지원은 경제적으로나 진로 탐색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통해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요인이었다.

#### (1) 부족하지 않은 경제적 지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다. '쓸 때 없는 낭비를 안 하면 (참여자J)' 생활이 가능했으며, 스스로 '그렇게 많은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B)'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하면서 정착 지원금을 받고, 매 달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게다가 정부 외 기관 혹은 교회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대안학교 등의 기관에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일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C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과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과외를 모두 참여할 경우 5만원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었다. 때문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용돈을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월세) 45(만원)를 내고, 적금 15만원. 그리고 먹을 거. 모자라면 조금씩 알바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면 돈이 나오고, 부지런하면 생활이 잘 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요. 공부를 해도 과외 하러오면 한 달에 5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움직이면 괜찮아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살만해요.

(16년 03월 12일 참여자C 면담)

기숙사에 살면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은 벗어나고 싶은 일이었지만, 기숙사에 살면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기숙사는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혼자 살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각종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장소였다. ‘학교를 졸업하면 기숙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참여자J은 전도사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다. 자취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기’ 때문이었다.

(기숙사 나올 때 처음에는)자취하려고 했는데 혼자 살고 싶어서. 하도 그분이,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같이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자취하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아, 거의 쪽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까 11살부터인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혼자 살고 싶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두 명이잖아요. (중략) 모르겠어요. 일단 혼자 살면 돈이 더 드니까. 저는 지금 일 안하잖아요.

(16년 03월 16일 참여자J 면담)

## (2)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

대안학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방과 후에 취미 활동이나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참여자A는 ‘학교에서 과외를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들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좋았다.

학교 끝나고 나서는 그냥. 학교에서도 또 과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 그냥 신청해서 하려구요. 뭐 영어 같은 거랑. 드럼. 피아노는 재미없어서 안 해요. 전 드럼 치는 게 좋더라고요.

(16년 03월 05일 참여자A 면담)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지금은 놀면 안 된다 고’ 생각하였으며, ‘원래 공부를 잘 안했던 것을 후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숨).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월, 수, 금이 지금 자격증 준비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월, 수, 금에 있는 과외는 다 지웠거든요. 그리고 화, 목만. 거의 3개 과외를 취소 시켰어요. HSK 자격증이니까. 그게 중국어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어중문과는, 제가 고대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최소, 제일 낮은 급수가, 6급이 제일 높는데 5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딸리지 않으려면 6급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부를 잘 안 했어서. 많이 후회돼요.

(16년 04월 22일 참여자D 면담)

### (3) 제도적 지원으로 인한 가치관 변화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대안학교를 통해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물질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했다. ‘돈이 최고 (참여자B)’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 참여자E는 남한에서는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가수가, 그런 꿈을 못 가져요. 꿈이란 게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화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중략) 여기서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앞날이 그래도 보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것도 안보이고.

(16년 03월 10일 참여자E 면담)

물질주의 가치관은 연령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남한의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탈 물질주의 가치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김명숙, 2008).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탈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지만,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제도적 지원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 4) 정체성의 형성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잘 하는 것이 없는 (참여자F)’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갔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높아지는 자존감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남한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 (1) 잘할 수 있는 중국어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었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중국어를 잘할 수 있었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 중국에 거주해야 했던 이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배웠던 중국어가 남한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F는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공을 살려 관광경찰이 되고 싶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G는 어린시절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경찰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다. G는 관광경찰을 하면, 자신이 잘하는 중국어를 이용해서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국어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참여자G는 ‘팔려서 시집을 간’ 집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 그

집에서 나온 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G는 ‘중국어는 조금 하기 때문 외국어 쪽 일이나 무역 쪽 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대학 만약에 가게 되면 외국어 쪽으로. 중국어는 조금 하니까 이제 영어 조금 더 배워서 외국어나 그런 쪽 아니면 무역 쪽으로. 그쪽으로 되게 관심이 있긴 한데, (중략) 저는 되게 빨리 배웠어요. 다른 사람보다. 애를 많이 썼어요. 중국, 중국말을 빨리 배워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중국말 모르면 또 나가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어 빨리 배워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배웠어요. 맨날 TV 보고, 그 중국에도 이제 한국 그거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 한국말 나오면서 밑에 중국 글이 나와요. 그걸 계속 보고. 이제 그러고 또 반대로 또 중국말이 나오면서 반대로 또 나와요 조절하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TV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중국말을.

(16년 3월 1일 참여자G 면담)

## (2) 북한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북한이탈청소년의 58.4%는 북한 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아한다(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서 거주하는 것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을 계속해서 숨기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청소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참여자D는 대학에 가면 남한친구들과 경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두려움이 커졌다. 대안학교에 있는 D는 시험 성적이 같은 학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끼리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

다.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면 남한의 또래와 경쟁을 해야 하고, 남한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끼리만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D보다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D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남한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자신은 통일일 되었을 때, ‘북한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통일이 되면 저는 북한의, 저희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잘 달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16년 4월 28일 참여자D 면담)

이러한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현재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논의

### 1. 결론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살펴보았다. 부모와 함께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의 다를 수 있으며 이들이 경험한 상실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상실과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살펴보았다.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16-21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이라는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 친구, 문화, 국가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 재북시, 탈북과정, 중국 거주시 부모의 부재 여부에 따라 이들이 경험한 심리적 고통은 상이하다. 북한에서 부모와 분리되어 탈북한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가치관, 문화,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지만, 자신이 선택한 상실이기에 이러한 상실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 또한 중국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낀다.

특히,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죽음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 대하여 명확한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이 있는 반면, 물리적으로 부재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어머니가 존재하는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이 있다. 또한 현재 어머니와 연락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재회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부재가 상실이 아닌 일시적 분리인 경우도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 어머니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관계 단절이 다른 양상을 보이며,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어머니 상실에 대처하는 방식이 상이하다(Ebata & Moos, 1994; Herman, 1997; Murray,

2001). 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남한사회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비교할 때, 입양을 통해 가족을 재구성하고 종교를 통해 상실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어머니 상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어머니가 남한에 부재하지만, 어머니의 부재를 단기간의 분리로 생각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존재한다.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어머니 부재의 어려움을 인내한다.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생존해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한 슬픔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홀로 거주하는 남한에서 북한과 중국에 있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어머니가 생존해있기 때문에 상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심리적 외상을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둘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차이가 있다. 부모의 부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을 변화시킨다. 같은 북한이탈청소년이지만 부모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구분지어지고, 자신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오랜 기간 단체생활로 인해 학교 기숙사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며,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달리, 방학이 되어도 기숙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다른 남한 청소년보다 학업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의 부재는 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부모와 자녀 간 애착은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Choi, Hutchison, Lemberger, & Pope, 2012).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부모와 친밀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이 다르다. 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머니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빠르게 긍정적 성장을 경험한다. 어떠한 상실을 경험하였는지에 따라서, 이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상이하다(Tedeschi, & Calhoun, 1996). 어머니의 부재를 상실로 여기지 않고 일시적 분리로 받아들이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 어머니 분리 경험 및 부재로 인한 외상을 극복한다.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머니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돈을 보내 주기 위해 남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어머니와 재회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다.

셋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인적 지원, 제도적 지원과 함께 가족을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적응해 나간다. 가족은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중요한 환경요소이다(백혜정 외, 2006; 이현심 외, 2011; 장창호, 2001). 무연고 청소년은 가족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그러한 과정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서 상이하다. 양부모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돕는 존재이지만(김현경, 2013), 입양은 명확한 부모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수단이며,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입양 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어머니의 부재를 일시적 분리로 여기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오히려 자신의 친어머니와 남한사회에서 재회할 것이라는 희망을 통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은 이들이 다른 남한 청소년의 삶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탈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며,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에 적응한다. 부모의 부재는 남한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만,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상실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성장한다. 이러한 극복과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 학교 선생님, 교회사람, 형사와 정착도우미이다.

## 2. 의의와 한계

이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 입국하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남한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모습을 담아낸 연구는 소수이다.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이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과 유사하게 학교 적응, 사회적 관계, 심리적 외상을 겪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과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이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현실적으로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론적으로 청소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부모 상실이 상호작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경험한 익숙한 환경 상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어렵게 만들었던 환경요인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 상실을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상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익숙한 가치관과 문화, 친밀감을 느낀 친구, 부모 외에 다른 가족원 상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익숙한 환경상실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북한과 남한의 환경 차이를 보여주고, 그러한 환경 차이가 적응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의 다양한 유형을 다루고,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상실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상실을 경험하고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어머니 상실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과정의 모습이 상이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보편성과 구분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개별성까지 고려하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한 사회에 보다 다양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특히 대안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 연구의 참여자는 16-21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다. 초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이 상이할 수 있다. 이들의 발달과정이 다르며,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다른 후기 청소년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한사회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이 존재한다. 이들

은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하여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측면에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및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통일 한국에서의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 통일 한국의 국민이 새롭게 변화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로서 의의를 지닌다.

## 참 고 문 헌

- 권경득, 임정빈, 김덕준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207-230.
-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4), 163-186.
- 김경희, 강은애, 손명아 (2016).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5(1), 131-164.
- 김명숙 (2008). 물질주의 및 탈 물질주의의 영향요인과 정치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1), 65-83.
- 김병로 (2014).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국학회보**, 18(2), 147-172.
- 김애진, 정원철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 **한국사회복지**, 21, 217-242.
- 김지수 (2013).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3), 59-82.
- 김현경 (2013). 남한입국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변화되어가는 삶의 기대에 관한 질적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2), 69-101.
- 김현아, 방기연 (2012). 그룹 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의 거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3), 137-170.
- 김형태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및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9), 27-59.
- 남북하나재단 (201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 (2015). **탈북청소년 남과 북 통합의 미래**.
- 노운미, 이주용 (2011). MMPI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연고 및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11(1), 341.

- 박선정 (2015) 상실 경험 청소년의 적극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1), 119-130.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1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06-R04). 한국청소년개발원. 1-233.
- 송진영, 배미경 (2015). 탈북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적응 의미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2), 219-248.
- 신현옥, 김도혜, 윤상석, 허수경, 강희석, 이소라, 주한나 (2011). **무연고 탈북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CR2011-26-2). 한국교육개발원.
-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227-234.
- 윤명숙, 김남희 (2013). 부모상실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요인: 사별, 이혼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21(2), 177-201.
- 이기영 (200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 유형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48.
- 이순미 (2014). 가족중심주의와 개인화 사이의 한국 가족: 가족주의 및 성별에 따른 세대관계 잠재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3), 1-36.
- 이순형, 진미정 (2006).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3), 1-19.
- 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9).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4), 309-341.
- 이현주 (2015).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활동. **북한연구학회보**, 19(2), 211-237.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38.
- 장창호 (2001).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203-235.
-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2009). 북한이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3(1), 193-216.
- 정서운 (2015). 탈북청소년의 또래관계 형성에서 나타나는 저해요인과 극복전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김희진 (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 -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 **사회복지연구**, 45(4), 143-167.
- 정응기 (2010).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법학연구**, 51(4), 219-243.
-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7), 33-57.
- 조정아 (2004).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4(1), 121-146.
- 최경자, 광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연구총서 2011-0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 Allen, J. P., Moore, C., Kuperminc,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 Bean, T., Derluyn, I., Eurelings-Bontekoe, E., Broekaert, E., &

- Spinhoven, P. (2007). Comparing psychological distress, traumatic stress reactions, and experiences of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with experiences of adolescents accompanied by par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4), 288-297.
- Beck, P. A., & Jennings, M. K. (1975). Parents as “middlepersons” in political social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37(01), 83-107.
- Berger, P.,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Anchor Books.
- Blumer. (1998).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ss, P. (2007). Ambiguous loss theory: challenges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Family Relations*, 56(2), 105-111.
- Boss, P. (2010). The trauma and complicated grief of ambiguous loss. *Pastoral Psychology*, 59(2), 137-145.
- Bowlby, J. (1978). *Attachment and loss*. London, UK: Penguin Books.
- Bronfenbrenner.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S., Hutchison, B., Lemberger, M. E., & Pope, M.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of South Korean adolesc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0(2), 163-177.
- Derluyn, I., Mels, C., & Broekaert, E. (2009). Mental health problems in separated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3), 291-297.
- Ebata, A. T., & Moos, R. H. (1994). Personal, situational, and contextual correlates of cop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1), 99-125.
- Folkman, S., & Lazarus, R. (1985). If it changes must be a process

-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uligni, A. J., & Eccles, J. S. (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22.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Inglehart, R., & Abramson, P. R. (1994). Economic security and value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336-354.
-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5). Adolescent peer relation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predic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1), 49-61.
- Lustig, S. L., Kia-Keating, M., Knight, W. G., Geltman, P., Ellis, H., Kinzie, J. D., Keane, T., & Saxe, G. N. (2004). Review of child and adolescent refugee mental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1), 24-36.
- Marshall, S. K., Young, R. A., Domene, J. F., & Zaidman-Zait, A. (2008). Adolescent possible selves as jointly constructed in parent-adolescent career conversations and related activities.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8(3), 185-204.
- McDevitt, M., & Chaffee, S. (2002). From top-down to trickle-up influence: Revisiting assumptions about the family in political socializ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9(3), 281-301.
- Murray, J. A. (2001). Loss as a universal concept: A review of the literature to identify common aspects of loss in diverse situations. *Journal of Loss & Trauma*, 6(3), 219-241.

- Neimeyer, R. A. (1999). Narrative strategies in grief therapy.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2*(1), 65-85.
- Rousseau, C., Rufagari, M. C., Bagilishya, D., & Measham, T. (2004). Remaking family life: Strategies for re-establishing continuity among Congolese refugees during the family reunification process. *Social Science & Medicine, 59*(5), 1095-1108.
- Heinzer, M. M. (1995). Loss of a parent in childhood attachment and coping in a model of adolescent resilience. *Holistic Nursing Practice, 9*(3), 27-37.
- Herman, J. (1997).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Patterson, J. M., & McCubbin, H. I. (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2), 163-186.
- Sandstorm, K. L., Martin, D. D., & Fine, G. A. (2006). *Symbols, selves, and social reality: A symbolic interactionist Approach*. Los Angeles, CA: Roxbury Publishing.
- Saldaña, J. (2015).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California: Sage.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Sofka, C. J. (1997). Loss history checklist. In J. D. Mannino (Ed.), *Grieving days, healing days* (p.20). Boston: Allyn & Bacon.
- Sofka, C. J. (2004). Assessing loss reactions among older adults: Strategies to evaluate the impact of September 11, 2001.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3), 260-281.
- Solheim, C., Zaid, S., & Ballard, J. (2015). Ambiguous loss experienced by transnational mexican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55*(2), 338-353.



- Stryker, R. (2007). Function. In G. Ritzer (ed.),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pp. 1808-1810).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ing
- Watt, W. B. (2001). Adaptation, fitness, and evolution. In N. J. Smelser & P. B. Balte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pp. 66-72). Oxford, UK: Elsevier Sciences Ltd.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urner, S., & Lapan, R. T. (2002). Career self efficacy and perceptions of parent support i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1), 44-55.
- Zimmermann, P. (2004).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riendship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8*(1), 83-101.

## 부록: 면담 질문

### 1. 첫 번째 면담

#### 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 성별
- 연령
- 탈북연도
- 남한 입국 연도
- 현재 거주 유형
- 동거인 유무 및 성별
- 기숙사 거주 경험
- 친부 생존 여부 및 분리시기
- 친모 생존 여부 및 분리시기
- 북한 및 중국에 거주하는 기타 가족원 유무
-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원 혹은 친척 유무
- 입양 유무
- 현재 재학 학년

#### 2) 남한에서의 일상생활

- 남한에 처음 왔을 때 거주한 곳은 어디인가요?
-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 학교에 다니고 계신가요?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시나요?
- 대학교에 진학하실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원하는 학과는 무엇인가요?  
(혹은 대학교에 진학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나요?
-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과 연락이 가능하신가요?
-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 가장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 2. 두 번째 면담

### 1)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

-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학업 측면/교우관계 측면)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나요?
-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비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북한, 중국, 남한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2) 재북시 경험

- 어렸을 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관계는 어떠했나요?
- 북한에서의 일상생활 모습은 어떠셨나요?
- 부모님과 떨어져서 남한에 입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중국 거주시 경험

- 탈북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 중국에서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 남한에 입국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 Abstract

# Loss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Kim, Daewoo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social adaptation among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living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ir experience of loss relates to social adaptation in South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way and the degree of the parental loss and ecological transition depending on each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2. What are the difficulties for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adjusting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how are these difficulties related to the parental and environmental loss they experienced?
3. How are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s coping with the difficulties they have encountered in adapting to the South Korean society?

10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s of 16 to 21 years of age, having been lived in South Korea over a year, were interviewed. The contents of interview were all transcribed, given the codes, and categorized. Finally,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se were analyzed.

The ke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experiences loss of familiar environments, such as the nation that they could be a legitimate member of, the values and culture that they were accustomed to, and the friends and family who they were close to. The loss of mothers could especially be classified as clear loss, ambiguous loss, non-loss.

Second,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arising from school adaptation, social relationship, distrust of others, burden of supporting their family, and a lack of self-esteem. The aspects of these difficulties appeared as different according to loss experience of familiar environments, as well as the types of mother loss.

Thir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try to get over difficulties by reconstituting their families, receiving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and by building their identities. These processes

of recovery vary, depending upon the loss and hardships they went through.

The results imply that familiar environmental loss of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s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reason for separating from their parents.

Th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in North Korea embrace value, culture, and loss of peers which were used to them more easily but suffer greater difficulty due to the loss of a nation which they could have become ordinary members.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s who experienced clear loss of mother strive to overcome the loss through active coping such as adoption and religion and utilize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s who experienced ambiguous loss of mother display greater difficulty in forming peer relationships and bigger distrust toward others due to the psychological trauma. Moreover, they go through the hardship of being a part of the economically active in the South Korea so as to financially support their mother in the North Korea or China.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s who don't regard absence of mother as loss, but temporary separation obtain the power to overcome a number of hardship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hope that they can reunite with their mother in the South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e differential adaptation between the separated North Korea refugee adolescents an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who live with their parents.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uffered from school adaptation, soci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trauma similar to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with parents. However, the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and the processes they get through to overcome were

distinct. In addition,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vestigating the loss of familiar environments separated NK refugee adolescents have undergone. They not only have lost their parents, but also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which affected their adaptation in South Korea. Finally, this study is relevant for considering different types of mother loss experience of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They have some experiences in common, which they met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South Korea after they separated their parents, but their adaptation processes vary, depending upon the types of mother loss.

**keywords : separated refuge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loss, social adaptation,**

***Student Number : 2014-22902***